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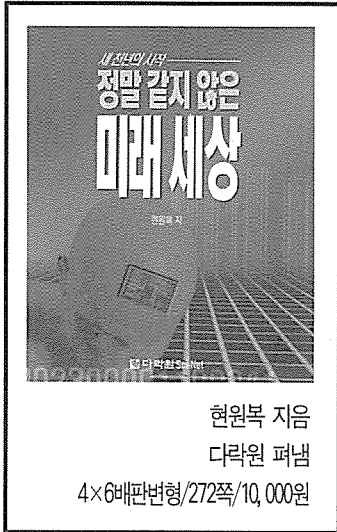
새천년의 시작 — 정말 같지 않은 미래 세상

21세기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새로운 천년은 장미빛 꿈을 실어다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 새로운 천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인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 지구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60억 인류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새로운 세기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어쨌든 이 경이로운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첨단 과학기술시대로서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지식기반 중심 사회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한 양상을 띠는 것이 확실하다. 삶의

질이 눈부시게 향상되는 이면에 인류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지구촌의 환경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시공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서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예언서인 프랑스의 의사 미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1555년과 1558년 사이에 출간)는 오늘날에도 계속 해설서나 영화로 출판,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소개한 2000년대를 내다본 예언서 중 첫 번째, 프랑스의 줄 베르네(1828~1905년)의 『이상도시』에서 거리는 자동식으로 청소되고 음악회의 연주내용은 유선을 통해 전세계 피아노로 전송되며 아기들은 자동 급유기로 젖을 먹는다. 1888년에 출판된 미국의 에드워드 배러미의 『되돌아보면서』에서는 2000년에 미국이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되어 능률적인 생산과 풍부하고 값싼 물품으로 누구나 풍족한 생활을 즐기게 되어 탐닉과 돈이 사라진다고 예언하였다. 윌리엄 쿡이 1903년에 출판한 『2000년으로의 왕복여행』에서는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추방된 인간노동자들이 중동 어느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1960년대에 미래학시대가 개막되면서 두뇌집단에 의해 2000



년대의 예측작업이 조직적, 과학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미래학자 허만 칸은 '2000년을 향하여'라는 위원회 보고와 『2000년』이라는 저서에서 33년 뒤의 일을 예측하였다. 통신혁명, 유전공학, 핵 확산을 포함하여 칸이 예측한 1백가지의 과학기술에는 실현된 것이 많다.

환상적인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사실로 믿겨지지 않는 미래세상을 과학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저자는 현재 세계의 주요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실에서 구상하거나 추진 중인 연구과제중에서 실용화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선별하여 1백49가지의 측면에서 21세기의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미리 그린다.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 미래의 어린이 놀이와 레저, 여행, 음식문화와 예술, 일반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의식주문화, 2장에서 첨단 컴퓨터·통신기술이 21세기의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3장에서는 첨단기술이 넓혀주는 주거공간, 4장에서는 초고속시대의 새로운 육·해·공 교통수단, 5장에서는 생명과학시대의 의학, 6장 생명공학이 부추기는 농업혁명, 7장 로봇의 미래, 8장 환경, 9장 화학이 여는 새로운 미래, 10장 깨끗한 에너지원, 11장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 12장 광기술과 재료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내다보고 21세기 과학이 당면한 과제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멋진 21세기형 휴가여행, 식품의 신선도를 감별하는 인공 혀, 인간의 감정을 읽는 컴퓨터, 지하에 빛을 공급하는 일광시스템, 땅 속을 비행하는 항공기, 즐거운 치과 나들이 등의 다양한 소재목에서 보는 것처럼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한국과학저술인협회 고문으로 왕성한 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원로 과학저술인이 집필한 이 책이 일반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21세기에 주인이 될 청소년들은 물론 대학생들에게도 미래상을 그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⑤7 朴澤奎(건국대 이과대 화학과 교수)